

최순실·트럼프 ‘쇼크’ 한국경제 ‘내우외환’ 광주·전남은 난파 위기

위기의 경제 벼랑끝 민생

한 치 앞이 안 보인다

전남 조선산업 침몰에

광주 자동차 수출 타격

소비위축 더 심해질 듯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 침체 국면이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의 사름도 깊어지고 있다.

최순실 사태로 사실상 국정이 마비 상태에 빠진 데다 앞전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쇼크’가 지역 경제에까지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美 대선·최순실 쓰나미에 난파 위기=10일 경제당국은 “트럼프 당선자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공약을 고려할 때, 앞으로 미국의 경제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및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수출 부진에 내수 둔화가 겹치며 경기 회복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더불어 수출과 내수를 짓누르는 부정적 요인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터여서 경기 부진이 더욱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트럼프 당선이라는 변수가 등장하기 전에도 한국 경제는 ‘기조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급기야 지난 9월에는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 지표가 전월 대비 일제히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갤럭시 노트7 단종 사태 등의 영향으로 올 9월 소비(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4.5% 감소, 2011년 2월(-5.5%) 이후 5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더욱이 개각이 단행됐지만, 최순실 사건 등의 영향으로 새 경제팀 출범이 오리무중 상태가 되면서 경제 부처들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자동차·철강 수출 불확실성 커져=광주·전남 지역경제는 주요 산업의 부진으로 제조업 등 생산은 급감하고 장기불황에 따라 소비는 위축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조선산업의 침몰은 또다시 지역 경제 침체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정부와 전남도가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 등을 통한 고용유지 지원,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 설치 등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손길이 미치지 전에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월 기준 광주·전남의 경제사정은 가전제품·반도체·선박·석유제품 등 주력 업종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며 무역수지 흑자폭도 축소됐다. 수출은 33억74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7%, 수입은 22억72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6% 각각 감소했다. 연간기준으로는 수입이 194억 9300만 달러로 21.8% 감소한 반면 수출은 314억 1700만 달러 11.0% 감소, 무역수지 기준으로 119억24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시각이 많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광주·전남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가전의 수출 전선에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광양제철 등 지역 철강업체와 휴대폰 등 대미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전면 재협상되면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며 “현 위기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흐름을 정확히 읽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주말 서울 사상 최대 ‘촛불 항쟁’



받는 사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번지 박근혜 귀하
대한민국 대통령 해임명령서 발송 기자회견

“국민의 이름으로...박근혜 대통령 해임”

전국공공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조합원들이 10일 오전 광주 북구 새누리당 광주시장 앞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해임명령서’ 발송 기자회견을 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조합원 각자가 서명한 ‘박근혜 대통령직 해임 명령서’엽서 5311장을 청와대로 발송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 퇴진’ 세 번째 주말집회 50만 이상 전망

“역사적 순간 함께”...광주·전남 2만 2000명 상경 준비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세 번째 주말집회가 1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다.

〈관련기사 2·3·4·7면〉

주최 측은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최대 100만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2008년 광주병 촛불집회 당시 최대 인원을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집회는 그동안 각계 각층에서 분출됐던 박 대통령 하야 요구가 최고조에 이르러 현 시국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10일 경찰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15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12일 오후 4시 서울 광장에서 ‘백남기·한상균과 함께 민중의 대반격을! 박근혜 정권 퇴진! 2016 민중총궐기’ 집회를 개최한다.

이 집회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기 전부터 기획된 행사로 민주노총 등에서 인원을 대거 동원하는데다 야 3당도 장외투쟁에 역량을 쏟기로 한 만큼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 집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경찰은 청와대 쪽 진입로를 ‘마지노선’으로 두고 행진을 차단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주최 측은 1부 행사를 마

치고 오후 5시부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여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노동자, 농민, 학생 등 2만2000여명이 버스를 대절해 민중총궐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2차 레에 걸쳐 ‘총궐기 대회 참여는 위법’이라는 공문을 내려보내며 압박을 가한 광주 시청, 전남도청, 각 시군 소속 공무원 노조원 2000여명도 참가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당일 최소 50만명에서 최대 100만명, 경찰은 16만~17만명을 예상한다. 2008년 촛불집회 기간 최대 인원이 모인 6월 10일에는 주최 측 추산 70만명, 경찰 추산 8만명이 모였다. 경찰 추산으로는 당시 규모를 넘어서는 얘기다. 이는 2004년 3월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규

탄 촛불시위(경찰 추산 13만명, 주최 측 추산 20만명)를 넘어서는 규모이기도 하다.

경찰은 이날 2만명 이상을 투입해 집회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두 차례 열린 주말 촛불집회에서처럼 시위대를 자극하는 언행을 피하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기조를 이번에도 유지한다.

민주노총은 10만명이 서울광장에서 청와대 입구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전 차로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까지만 행진하라며 ‘제한 통고’했다. 사실상 금지 통고다. 이와 별도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청와대 방면으로 각 2만명이 4개 경로를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이 역시 민주노총 측 신고와 마찬가지로 제한 통고할 방침이다. /김형호기자 khh·연합뉴스

내년 예산 광주시 4조416억원·전남도 6조3735억 편성

광주시의 내년도 예산 규모가 4조416억원, 전남도는 6조3735억원으로 편성됐다. 〈관련기사 5면〉

1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올해 4조605억원보다 188억원(0.5%)이 줄어든 4조41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

는 1470억원(4.7%)이 늘어난 3조275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658억원(17.8%)이 줄어든 7666억원이다.

지난해 첫 4조원대를 돌파한 광주시 예산이 줄 것은 특별회계로 운영되던 지역개발기금이 일반기금으로 전환된데 따른 것으로, 지역개발기금 1512억원을 포함하면

1324억원(3.3%)이 증가한 셈이다.

전남도도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6조4352억원)보다 617억원(0.95%)이 줄어든 6조3735억원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8% 늘어5조7112억원이지만, 특별회계는 24.7% 줄어 6623억원을 기록했다. 특별회계로 운영되던 지

역개발기금이 일반기금으로 전환돼 예산안에서 빠진 것이 예산 감축의 원인이다.

광주시는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등 일자리 창출과 미래먹거리 발굴 등 역점 정책에 중점 배분했다. 전남도는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육성 등 경제 활성화에 예산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50-YEAR
Ginseng Research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자음생크림

피부 자생력과 방어력을 키우는 인삼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다

설화수 자음생크림

천천히 변화를 겪는 피부는 어느 순간 크게 힘을 잃습니다

피부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전하는 설화수 자음생크림

인삼 꽃의 응축된 힘으로 방어력을 강화해 피부 손상 예방에 도움을 주고 인삼 뿌리의 강력한 효능 성분으로

피부의 자생력을 높여줍니다. 더욱 강화된 인삼결정체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세요

• 1966년 설화수 브랜드의 모태인 ABC인삼크림이 탄생되었으며, 이후로 50년간 인삼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유명백화점이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